

만주문자의 발전과 청대의 만주어문헌

장차오 중국 사회과학원

1. 문자

만주문자는 1599년에 창제되어 지금까지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초창기와 번성기 그리고 점진적인 소실기의 과정을 거쳐 왔다. 문자는 언어를 기재하는 부호체계로, 이론상 여러 가지의 선택가능성을 갖는다. 만주족과 그 선조인 여진족의 역사에서는 일찍이 두 가지의 문자체계가 출현하였다. 그 하나가 1119년에 창제된 여진문이다. 《金史》 권73 <完顏希尹傳>에 따르면: “금나라는 처음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국세가 강해져 이웃나라와 외교를 할 때 거란문자를 사용하였다. 太祖가 希尹에게 본국의 문자를 만들고 제도를 갖추라고 명함에 따라, 希尹은 한족의 楷體字를 모방하고 거란문자의 제도를 따서 본국 언어에 맞춘 여진문자를 만들었다. 天輔3년(1119) 8월 마침내 《字書》를 완성하니, 태조가 크게 기뻐하고 당장 시행토록 명하였다.” 1234년 금이 멸망한 후에도 여진문자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여전히 사용되다가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실전되고 몽골문자를 사용하게 된다.

1599년(明 萬曆27년), 당시 여진족 수령이던 누르하치가 문인인 額爾德尼와 噶蓋에게 명하여 몽골문자의 자모를 빌어 부족언어를 표기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함에 따라, 이 민족의 두 번째 문자체계가 창제되었는데, 역사에서는 이것을 만주문자라 일컫는다. 《만주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만주에는 문자가 없어 문서가 오갈 때면 반드시 몽골문을 익히고 몽골어로 번역을 해야만 통했다. 己亥년 2월, 태조가 몽골문자로 국어를 짜맞추고자 하니 巴克什額爾德尼와 噶蓋가 말하기를; “저희들은 몽골문자를 익힘으로써 몽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말을 문자로 옮겨 쓰라 하시면 저희들은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태조가 말하기를; “한족이 한자를 읽으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모두 다 알고, 몽골인이 몽골자를 읽으면 역시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가 모두 다 아는 데, 우리의 말과 몽골문자는 몽골어를 익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대들은 어찌 우리 말을 문자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다른 나라 말을 익히는 것은 쉽다고 여기는가?” 噶蓋와 額爾德尼가 말하기를; “우리 말을 문자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문자를 짜서 문장을 만드는 일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태조가 말하기를 “阿자를 쓰고 아래에 媽자와 합치면 ‘阿媽’가 아니던가? 또 額자 아래 默자를 합치면 ‘額默’이 아니던가? 내 뜻은 이미 굳었으니 그대들은 시도해 보도록 하라.” 이렇게 하여 마침내 몽골문자로 국어를 표기하는 방안이 나왔고, 반포되어 시행하였으니, 만주문자의 창제는 태조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만주문자는 몽골문자의 모양과 음을 차용하여 함께 표기하였기 때문에 글 쓰는 형식이 몽골문과 매우 흡사하였다. 《無銜點字書》에 따르면, 이 시기의 만주문자는 원음자모가 7개, 보음자모가 22

개로 기본적으로는 만주어 표기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만주어와 몽골어는 결국 두 개의 다른 언어인지라 어음이나 읽는 규칙을 막론하고 모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만주문자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바로 《滿文老檔》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2字頭는 원래 권점이 없다. 上下字가 구별이 없어 塔達, 特德, 扎哲, 雅葉 등은 그냥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책에 있는 보통 말도 그 뜻을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웠다. 따라서 인명이나 지명에서는 꼭 착오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사용한 지 33년 후인 天聰6년(1632년), 淸 太宗 皇太極은 達海에게 손질을 더 하도록 명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만주문자의 자모를 조정하고 규칙을 정한 것이다. 조정 후 만주문자 자모는 원음자모가 6개, 보음자모가 19개였다. 둘째, 일부 자모의 쓰기 형식을 바꾼 것이다. 만주문자에 방점을 첨가하여 아예 구별할 수 없거나 구별하기 어려운 어음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일부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10개의 특정 자모를 늘린 것이다. 넷째, 일부 음절의 쓰기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만주문의 형체나 발음 및 쓰기규칙이 확정되었고, 점차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달해가 개선한 뒤의 만주문은 ‘新滿文’ 또는 ‘有圈點滿文’이라 불리우고, 이와 상응하여 개선하기 전의 만주문은 ‘老滿文’ 혹은 ‘無圈點滿文’이라 불리웠다.

만주문자의 창제로 그 선조인 여진족이 만들고 사용했던 여진문이 사라진 이래 150여 년 동안 몽골문자를 도구로 썼던 역사가 마감되고, 만주족 사회 각 방면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였다. 초기의 문헌은 보존된 것이 많지 않아 매우 진귀한데, 주요한 것으로 無圈點檔子와 滿文木碑 등이 있다.

신만문의 반포 시행은 만문 초창기의 마감을 상징한다. 이때부터 만문의 발전은 성숙기로 접어드는 것이다. 우선, 신만문의 반포로 노만문이 지닌 어음과 쓰기형식 및 쓰기규칙상의 미흡함을 개선하였고, 사람들이 배우고 사용하기가 엄청나게 편리해졌다. 아울러 만문의 응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어 대량의 공문서와 각종 번역서적, 금석각문헌 등이 쏟아져 나왔다. 번역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통계에 따르면 후금이 관외에 문서고를 만든 때(天聰3년, 1629년)로부터 청 초 순치 시기에 이르기까지 《刑部會典》·《素書》·《三略》·《通鑒》·《六韜》·《孟子》·《三國志》(실은《三國演義》)·《大乘經》·《禮部會典》·《洪武寶訓》·《遼史》·《金史》·《元史》·《五經》·《大學衍義》 등 수많은 한문 경전사집들이 차례로 번역되었다.

청조의 국어가 되어 위로는 국정부로부터 아래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만문의 응용은 사회생활 각 방면에 스며들었다. 이와 동시에 만문 자체의 발전도 날로 성숙하였다. 어법상으로는 각종 간단한 구형이 점차 규칙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량의 복문형식도 출현하여, 만문의 표현이 더욱 섬세하고 정확해졌다. 어휘에서는 대량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으며, 국가가 나서서 권위자들을 구성해 만문의 어휘에 대한 체계화와 전면적인 정리작업을 실시하였다. 강희47년(1708년)에 나온 《御制淸文鑑》은 청대 최초이자 유일한 만문으로 만문을 해설한 분류사전이다. 관에서 편찬한 대형 백과식 어문사전인 《어제청문감》은 당시 만주, 몽골, 한 등 다원화된 문화적 배경 하에서 만주족문화의 신속 발전과 새로운 사회질서의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권의 안정적 발전과 만문 자체의 성숙에 따라서 청 정부는 주도적으로 만문을 확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사서 편찬에서는 《어제청문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기초 위에서 《滿蒙文鑑》을 번역 출간했다. 또 건륭조에는 ‘국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펴는

한편, 《御制增訂清文鑑》(만주문과 한문 양체) 《御制滿洲, 蒙古, 漢字三合切音清文鑑》 등을 연달아 출판하였다. 그리고 건륭56년(1791년) 《御制五體清文鑑》(滿, 蒙, 漢, 藏, 回[維])이 나오면서 만문의 응용과 확산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 것은, 청 정권이 만문의 응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국서가 영원무궁하기를 원했지만, 만문이 만주족 사이에 실제로 사용하는 정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건륭 말년 이후, 청조의 발전은 정점으로부터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만주족과 한족 간의 민족융합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만문의 발전과 사용도 같은 속도로 쇠락하였다. 관청의 문서에는 만문의 사용이 갈수록 형식적으로 많아진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만문의 사용범위가 날로 줄어들어 가는 것이다.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가 전복된 후 ‘국어’의 지위를 상실한 만문은 급속히 쇠퇴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현대 언어학의 방법을 가지고 만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만주어 연구다. 사실, 만문이 탄생한 그 날부터 전통 언어학을 이용한 만문연구는 수백 년 동안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지만, 가장 먼저 현대 언어학을 통해 만문을 연구한 것은 서양의 선교사들이었다. 지금은 만문이 역사가 되어 버렸지만 만주어와 만문문헌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의 전문학자와 지식인들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날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II. 문 헌

현존하는 만주어문헌은 그 수량이 방대하고, 문서, 도서, 금석비각 등 형식 또한 다양하다. 단지 북경 중국제1역사당안관에 소장된 청대 만주어문헌만 하더라도 그 수가 100만을 넘는다. 중국의 여러 성에 있는 당안관(주로 동3성 및 그 관할 시, 내몽고, 티벳, 신장 등)과 도서관, 박물관에 모두 소장품이 있으며, 대만의 고궁과 중앙연구원에도 대륙에서 가져온 대량의 만주어문헌을 보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7, 18세기 및 그 이후의 대외문화교류와 정치마찰 속에서 대량의 만주어문헌이 세계 여러 나라로 전해졌고, 러시아, 한반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바티칸 등지에는 지금도 진귀한 소장품이 남아있어, 세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는 각지의 만문문헌을 가진 당안관과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대량의 정리와 연구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지에도 관련 출판물이 있다.

1. 당안류

모든 만문문헌 가운데 만문당안은 수량이나 내용의 풍부성과 중요도를 막론하고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작성시간의 폭만 보더라도 명조 말년에 출현한 《무권점당》에서 민국 초년의 海拉爾당안에 이르기까지는 300여 년이나 되며,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 북경 중국제1역사당안관의 예만 들더라도 만들어진 상태에 따라 內閣, 軍機處, 宮中, 內務府, 宗人府, 國史館, 八旗都統衙門, 理藩院, 欽天監, 溥儀당안 등 10여 가지로 나누어진다.

1) 내각 만문당안

내각의 만문당안은 역사가 가장 오래 되고 문서의 종류도 다양하며 내용이 풍부하다. 가령 制詔 誥勅, 題奏表箋, 折奏本章 및 각종 전문문서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천명, 天聰, 崇德, 順治, 康熙, 雍正 등 몇몇 조대의 문서는 같은 기간 한문당안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국정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만문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학계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이른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무권점당자》이다.

《無銜點檔》은 오늘날 《滿文老檔》 《舊滿洲檔》 《老滿文原檔》 등 여러 가지 명칭을 갖고 있는,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만문문서이다. 원본이 손상되고 빠진 부분이 있지만 1607년(명 만력35년, 후금 천명 전 10년)부터 1636년(명 순정9년, 청 순덕원년) 초창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내용은 여진 각 부족이 산재하던 때부터 통합에 이르고, 또 후금 정권이 수립할 때까지, 이후 후금에서 청으로 바뀌고, 여진이 만주로 바뀌어 동북 지역을 통일하고 관내로 진군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상황을 반영함은 물론 민족, 외교, 궁정생활, 사회풍속, 천문지리 등까지 다루고 있어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초기에는 이미 사용했던 명조의 공문서에 가록했다가 후에 베껴서 정본을 만들고 책으로 엮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원본문서는 모두 40책이나 되었으며 궁중에 보존되어 오다가 1949년 대만으로 옮겨져 현재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다. 원본 문서가 무권점노만문으로 씌어있기 때문에 건륭황제는 후대 사람들이 알아보기 못할까 염려해서 인원을 짜서 초본을 다시 만들어 후세에 전했다고 한다. 초본은 다시 정본과 초본으로 구분하여 각각 淸宮內閣大庫와 盛京崇謨閣에 보관하였는데, 이 문서들은 워낙 희귀한 것이라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內國史院문서는 청초의 內三院 가운데 하나인 內國史院에서 청대 국사를 기록하기 위해 만든 문서로써 편년체 형식으로 1627년(명 천계7년, 후금 천총원년)부터 1661년(청 순치18년)까지 달마다 책자로 엮었다. 시간으로 보면 이것은 《무권점당》을 보충하고 이어간 것으로, 황태극과 순치조 多爾袞시기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상황 및 몽골, 조선 등 주변 민족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제1역사당안관은 현재 청이 입관하기 전의 국사원 만문문서 47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중 천총조가 18책, 순덕조가 29책이다. 책마다 길이, 두께, 너비, 지질 등이 서로 조금씩 다르고, 문자는 신구교체가 이루어지는 과도기의 만문을 사용하였다. 이 당안관은 또 순치조 내국사원 만문문서 74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형태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문자는 신만문을 위주로 하였다. 상술한 이 두 가지 문서는 이미 당안관에서 정리 편집하고 한문으로 번역하여 출판되었다.

題本은 청대 관리가 황제에게 일상의 공무를 보고한 문서이다. 초기의 만문제본은 사료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으며, 대량의 만한합벽제문이 만주어문 및 여러 분야에 대해 미치는 연구적 의미는 실로 무한하다. 《密本檔》이나 六科史書 등 중요한 문본은 모두가 제본의 요약 초본이다.

《密本檔》은 청초 내삼원 가운데 하나인 內秘書院에서 청대의 문서보안제도에 따라 밀본을 초록하여 만든 문서책자이다. 제주본장의 일종이며, 밀본의 격식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 기밀사항을 상부에 보고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순치 초에 기밀이나 탄핵문건은 “密封進奏”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곧 비문을 밀봉한 후 通政使司를 거치지 않고 직접 乾清門으로 보내면 황제의 비열을 거친 뒤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다. 명대에는 이러한 밀본을 베껴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청대

에도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지만 문서 이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만 보존이 편리하도록 내비서원이 밀본을 베껴 보관하였다. 그러나 밀본의 원문서는 지금 보존된 것이 없다. 《밀본당》은 주로 李自成, 張獻忠 및 그 잔당과의 전쟁이나 동남연해에서 鄭成功과의 전투상황과 같은 순치, 강희시기의 전황을 반영하였고, 명의 투항한 장수 및 이자성의 부하에게 시행한 참수보류정책문건이 있는가 하면, 각급 장수가 중원을 평정하는 데 세운 전공을 기록한 문건도 있고, 병력 이동, 주둔, 관리들의 승천 및 민중위문, 징세와 면제, 토지조사, 황하 치수, 능묘나 사찰 축조 등을 다룬 문건도 있다,

史書 역시 청대 내각 만문문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본을 六科로 나누고 요약하여 옮겨 썼기 때문에 육과사서라고도 불린다. 순치조와 강희원년의 사서는 모두 만문으로 초록하였고, 강희2년부터 만문과 한문을 함께 사용하였다. 현존하는 청대 초기 제본은 그 수가 매우 적지만 다행히 육과사서가 미흡함을 보충해주므로 더욱 그 가치가 높다.

이밖에 만문으로 쓴 《實錄》《聖訓》《玉牒》 및 전제초록본과 같은 것들은 모두 각종 역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귀중한 사료이다. 蒙古房에서 보존한 만문 러시아문서를 예로 들면, 몽고방의 직무는 몽골족, 회족, 장족 등 소수민족과 외국문자로 씌어진 문서를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외국과 문서를 왕래하는 일이 생기면 모두 몽고방에서 러시아관 혹은 서양관으로 보내 번역을 하고, 번역문을 황제에게 올려 비열을 받은 뒤 다시 몽고방으로 넘겨 번역문과 처리상황을 문서에 기록한다. 현재 발견된 17책의 만문 러시아문서는 순치12년부터 옹정12년까지 제정러시아의 영토침탈확장과 중러 쌍방의 교섭, 국경선 설정, <네르친스크조약>과 <카흐타조약>의 체결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중국에 무역상을 파견한 내용, 선교사가 들어와 교회를 짓고 포교한 내용, 청조가 圖理琛을 토르구트부에 사절을 보내고 도중에 러시아측과 접촉한 상황 및 중러 쌍방의 외교왕래상황 등을 담고 있다.

2) 군기처 만문당안

군기처란 원래 옹정 초년 서북지역에 대한 용병을 위해 설립한 것인데, 후에 황제가 직접 통제하는 황권 강화수단이 되었다. 군기처가 설립된 후 내각의 권력은 대폭 약화되었고, 문서제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처리하는 것은 모두 ‘주절’의 형식으로 군기처가 직접 황제에게 올리고, 비열을 받은 후에는 다시 군기처가 밀봉하여 하달하였으며, 황제의 명령도 군기처가 직접 발송하였다. 반면에 내각의 제본은 단지 관행대로 공무를 처리하는 문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옹정8년 이후 군국대사와 관련된 문서는 대부분 군기처에서 다루게 된 것이다. 만문문서도 예외가 아니다. 군기처의 만문당안은 수량이 많고 잘 정리되어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고 보존도 잘 되어 있는데, 이는 청 정부가 이 문서들을 매우 중시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청제에 의하면 군기처는 10년마다 한번씩 훼손된 문서를 복구하거나 다시 초록하도록 규정하였고, 원본과 초본을 함께 보관하였다. 군기처의 만문당안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는 錄副奏折, 月折檔, 上諭檔 및 각종 전제문서가 있다.

滿文錄副奏折은 滿文月折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신하들이 상주한 내용들을 초록한 것으로, 보름마다 한번씩 쌓인 문서들을 일자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그 시간범위는 옹정8년(1730)에서 선통3년(1911)까지이다. 건륭29년(1764) 이전까지는 군무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였는데, 군무사항의

상당수는 서북지역의 용병상황을 반영하였다. 만문월절당의 내용은 청대 准噶爾, 大小和卓, 大小金川 평정과 土爾扈特的 귀속 등 중대한 역사적 사건 외에도 동북, 내외몽고, 신강, 티벳 등 변경지역의 민족, 군대주둔, 둔전, 공사, 폭우나 폭설, 곡물가격 및 지방관리들의 승천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 적지 않다. 근래에는 대형 참고서인 《청대변강만문문서목록》이 출판됨으로써 이러한 문서들을 검색하기가 아주 편리해졌다.

군기처에서는 문서를 찾기에 편리하고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사건에 대해 관련 문서들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는 西藏檔, 巴勒布檔, 北路軍務檔, 班禪事件檔, 哈薩克檔, 新疆檔, 伊犁檔, 回子伯克檔, 金川檔, 木蘭檔, 夷使檔(중국에 온 외국사신들과 관련된 문서), 盛京檔, 廓爾喀檔 등이 있는데, 주제에 따라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

준갈이 문제 관련문서: 《준갈이당》 《북로군무당》 《군무당》 《熬茶당》 《이사당》 과 《서로당》은 전체적인 시간대가 옹정9년에서 건륭36년까지로, 모두가 조칙, 서신, 논의, 주청 등과 관련된 문건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이 가운데 《북로군무당》 《군무당》 과 옹정조의 《준갈이당》은 주로 청 정부가 군대를 보내 준갈이 부족의 고위급 반란분자인 噶爾丹策凌과 阿睦爾撒納 등을 평정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반영했다. 또 《이사당》 《오차당》 《서로당》 과 건륭조의 《준갈이당》은 준갈이 부족이 청조에 화해의 뜻을 표시하면서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티벳 오차에 사람을 파견한 것이라든지, 청 중앙정부가 군대를 보내 사절을 영접 호송하고 준갈이 부족의 고위층이나 사신을 접대 포상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티벳 문제 관련문서: 《서장당》 《과륙포당》 《곽이객당》은 전체적인 시간대가 건륭15년에서 58년까지며, 주로 청 정부가 군대를 보내 朱爾墨特那木扎勒의 반란을 평정한 뒤 원래의 군왕을 폐하고 ‘噶厦’(티벳어로 “명령을 내리는 기관”의 의미)를 설치, 4명의 ‘噶布倫’(‘噶倫’ 혹은 ‘噶隆’이라고도 한다)이 티벳의 지방행정업무를 맡도록 한 것; 곽이객의 군대가 티벳을 침범, 日喀則을 공격하고 扎什倫布寺를 약탈하자 청 정부가 티벳으로 군대를 보내 곽이객군을 격파한 것; 티벳의 군사, 정치, 종교 방면에 중대한 개혁조치를 시행하고, 티벳 주재 관리와 달라이라마의 직권 및 지위를 새로 규정하거나 ‘金瓶掣籤’ 제도를 만든 것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였다. 이밖에 《반선사건당》은 건륭44년부터 45년 사이에 班禪額爾德尼가 承德으로 와서 건륭황제를 배알했던 전후상황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서남, 서북지역의 장족을 제외한 기타 민족들을 다룬 문서: 《年班來京回番檔》 《回子土司廓爾喀檔》 《哈薩克檔》은 전체적인 시간대가 건륭13년부터 광서16년까지로, 회자의 伯克, 합살극의 汗, 사천의 土司 등이 관례에 따라 사절로 파견하여 입경한 사람들의 이름과 인원 수, 포상 건의서와 상품 목록, 각 伯克, 土司, 汗이 올린 서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新疆檔》 《西寧伊犁檔》의 전체적인 시간대는 가경24년부터 함풍11년까지로, 신강, 티벳, 烏里雅蘇臺, 科布多 등지에 파견된 장군, 실무관료, 인솔관리, 도통, 부도통, 시위 등 관원들의 이름과 호적, 나이, 부임일자 및 가족 동반 여부 등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금천당》은 건륭34년에서 41년 사이에 청 정부가 대소금천을 평정한 기록이다. 또 《토이호특당》은 건륭년간에 토이호특 부족이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귀환하자 청 정부가 군대를 보내 영접하고 보조금 지급 및 주거지 편성과 일자리 마련을 도와준 사실을 기록하였다.

3) 궁중 만문당안

‘궁중’은 하나의 명칭일 뿐이지, 조정에서 설치한 기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후세 사람들이 원래 궁 안의 각처에 보존된 문서를 정리할 때 “계통은 다르지만 지점이 모두 내정에 있다”고 여겨 ‘궁중각처문서’라 부른 데서 기인한 것이다. 궁중만문당안은 수량이 많지 않고 문서의 종류도 단순하다. 이 가운데 가장 진귀한 것은 滿文朱批奏折, 즉 황제가 친필로 비열한 주절로써, 앞에서 소개했던 만문녹부주절과 월절당의 원본을 말한다. 주절이란 청대 관리가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의 일종이며, 강희 초년 황제가 읽고서 붉은 모필로 뒷면에 표시했던 주절을 ‘주비주절’, 약칭 ‘주절’이라 한 데서 기원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만문주절은 강희12년, 가장 빠른 한문주절은 강희26년으로 둘 사이에 14년의 차이가 난다. 강희조 만문주절의 수량은 5,800여 건, 옹정조의 만문주절은 6,600여 건에 달한다. 주비주절은 그 내용이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군국대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만문주절의 작자는 대부분이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군이나 도통, 내무부대신, 영시위내대신, 황손 등 만주족 귀족대신들이며, 다수가 변경의 각종 업무, 군무 및 황실업무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청의 제도에 의하면 황제에게 올라가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황제의 ‘주비’나 ‘흠정’을 거쳐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황제의 주비를 거친 주절들은 모두 원본을 밀봉하여 글을 올린 사람에게 보내졌다. 후에 옹정황제가 명을 내려 모든 주비주절과 주비유지를 일률적으로 회수하게 함으로써 대량의 주비주절문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모두 글을 올린 사람에게 단단히 봉해져 반환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작자 이름에 따라 분류한 소위 ‘인명포’가 만들어졌다. 가령 만문주비주절에는 費揚古, 成袞扎布, 蘊端多爾濟, 策凌, 達爾黨阿, 阿蘭泰, 傅恒, 阿里袞, 明端, 舍圖肯, 海明, 扎拉豐阿, 愛隆阿 등 수백 명의 인명포가 있다. 지금은 현존하는 청대 강희, 옹정 양조의 궁중 주비주절이 모두 이미 영인하거나 한문으로 번역되어 세상에 공개되고 있다.

4) 황실업무당안-內務府와 宗人府의 만문당안

내무부는 곧 궁정업무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오로지 황제와 황실생활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지위가 매우 높아 국가 권력기관에 속하지 않지만 정치활동과도 연관이 있었다. 내무부당안은 주로 궁정의 재물출납, 각종 행사, 어마 관리, 능침행궁, 三旗莊頭的 錢糧, 황제의 차와 음식, 어의와 약재, 어서 제작, 사냥 시중, 圓明園이나 暢春園 같은 황실정원 관리, 태감과 궁녀의 선발 및 내무부 소속의 문무관원 인선과 봉록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내무부당안은 종류도 많고 수량도 많지만 중요한 내용이 적지 않다. 건륭조 이전까지는 만문을 위주로 하여 한문사료가 극히 적다. 이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는 奏銷당이 있다. 내무부의 주소당은 내각의 주소당과는 다르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보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무부 관원이 주절, 녹두패, 구두주청 등의 형식으로 상주한 일을 모아서 만든 문서책자의 총칭이다. 《홍루몽》의 작자인 曹雪芹의 가문과 李煦抄 가문에 관한 사료, 淸宮醫案이나 원명원과 관련된 조기의 사료들은 대부분 이 문서에서 나왔다. 이밖에도 行文檔, 畀文檔, 上傳檔 등이 있는데, 역시 이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이미 기초적인 정리를 거쳐 초목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자료 찾기가 용이하며, 청대의 경제, 문화와 궁정역사를 연구하는 데 활용 가치가 높다.

종인부 만문문서는 주로 玉牒, 皇冊, 覺羅명부 등이며, 수량이 적지 않아 족보학과 황실의 인사문제를 연구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5) 기타 만문당안

위에서 소개한 몇 개의 꺾직한 문서 외에도 약간의 소형 만문문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사관, 팔기도통아문, 이번원, 흙천감, 전봉 및 호군통령아문, 부의당 등이 그것이다. 보존된 만문문서 가운데는 대량의 중앙문서 외에 일부분의 지방문서가 있다. 중국제1역사당안관이 소장한 寧古塔副都統衙門, 阿勒楚喀副都統衙門, 扈春副都統衙門의 문서와 요녕성 당안관이 소장한 盛京內務府, 三姓副都統衙門, 雙城堡協領衙門의 문서, 흑룡강성 당안관이 소장한 黑龍江將軍衙門의 문서는 총 16,900여 책이나 되고 다수가 만문으로 씌어졌다. 그 전체적인 시간대는 순치에서 선통년간이다. 예로부터 중국의 동북지역은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청대에 거주한 민족으로는 만족, 몽골족, 한족, 조선족, 회족, 鄂溫克족, 達斡爾족, 錫伯족, 鄂倫春족, 赫哲족, 柯爾克孜족 등이 있는데, 그들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방면에서의 활동상황은 동북 각 아문의 문서 가운데 대량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문서들은 내용이 풍부하여 청대 동북 각 민족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내몽고의 土默特左旗에 보관된 歸化城副都統衙門 만문문서는 총 1만여 건에 이르고, 작성된 시간대는 청 옹정조에서 민국 초년까지이다. 이 문서들은 귀화성부도통아문에서 토목특 몽고 좌우 2개 기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토목특 몽고기의 관리 임명, 훈련 상황, 주둔지 순찰, 군량 수령, 상벌사항, 호구 상황, 토지목장, 재난구호, 곡물가격, 관용식량 납부, 광물 채취, 상업무역, 농지세, 토목공사, 민사사건, 라마 업무, 문화교육 등을 반영하고 있다.

2. 도서와 비각류

여기에는 당안문헌을 제외한 만문 창작품, 번역작품, 사서와 비각문헌이 포함된다.

만문 창작품은 수가 많지 않으며, 종교색을 띤 《尼山薩滿》, 칠리성이 풍부한 《百二老人語錄》, 다큐멘터리 형식의 《異域錄》 및 황제가 직접 쓴 《御制避暑山莊詩》 《御制盛京賦》 등을 대표로 꼽는다.

《尼山薩滿》은 만문으로 쓴 구성이 완전한 민간고사로, 주인공 니산살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승으로 가서 員外의 아들인 色爾古代, 費揚古의 영혼을 찾아 회생시킨다는 줄거리다. 이 이야기는 한족에게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달간어, 악운춘, 악운극, 혁철, 석백 등 북방민족 가운데에도 아는 사람이 많았다. 만문 《니산살만》의 필사본은 이미 6부나 발견되었는데, ‘齊齊哈爾本’, ‘瑗瑗一本’, ‘瑗瑗二本’, ‘海參崴本’, ‘民族本’ 및 ‘新發現本’이 그것이다. 이 6가지는 줄거리의 길이가 다르기는 하지만 저마다 특색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해삼위본’이 비교적 완전하여 가장 양호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량의 살만신가를 보존하였고, 살만의 저승으로 건너가는 의식 모든 과정이 묘사되었으며, 니산살만의 인물을 잘 형상화하였기 때문에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일어, 이태리어, 한국어, 중국어 번역본과 대량의 연구논문 및 저술이 나와 있다.

《百二老人語錄》은 몽고 正蘭旗 사람인 松筠(1752-1835)이 건륭 년간에 이야기를 모으고, 그의 친구 富倫泰가 편집하였으며, 정란기 사람 富俊이 한문으로 번역하여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모두 8권이고 각 권마다 15조씩 총 120조로 구성되었으며, 매 조마다 “한 노인이 말하기를”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백이노인어록’이라 명명한 것이다. 내용은 국사와 예의 및 윤리도덕이 중심이다. 현존하는 초본은 북경, 심양, 대북, 일본, 몽골, 러시아, 미국 등지에 산재하며,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다.

번역작품은 《清太祖實錄》에 따르면 천총3년(1629) 盛京(지금의 심양)에 문관을 설립하고, 유신들에게 한문서적을 번역하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강희 년간에 이르러서는 만문으로 번역한 한문전적이 사서오경은 물론이고 치국과 관련된 모든 서적을 망라할 정도에 이르렀다. 건륭 시기에는 청 전기에 이미 만문으로 번역했던 한문 경전문헌을 재차 번역하였다.

《四書》는 교화를 위한 한문 경전으로 만문에도 여러 종의 번역본이 있다. 청의 昭禔이 지은 《嘯亭雜錄》에 따르면 “崇德 초에 文皇帝가 사람들이 한자를 모를까 걱정하여 達海에게 《國語》 《四書》 및 《三國志》를 각각 1부씩 번역하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달해가 번역한 《사서》가 최초의 판본이며, 그 다음으로 강희30년(1691) 만한문합역본 건륭6년(1741) 만문역본 건륭20년(1755) 만한문합역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건륭20년 鄂爾泰 등의 번역본이 가장 유행하였다. 이 책은 또한 《御制翻譯四書》로 불리우고 여러 조대에 걸쳐 간행되었다.

《御制古文淵鑿》은 강희제가 한문 《고문연감》에서 직접 고른 것을 만문으로 번역한 작품으로, 강희24년 12월(1685-1686)에 완성하였다. 大學士인 徐乾學 등이 편저하고 내부에서 간행하였는데, 책의 전체 분량이 64권 36책이나 되었다. 한문 《고문연감》은 내용이 방대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고문 모음집인데, 《어제고문연감》은 그 중에서도 좋은 문장을 엄선하였고 특히 번역이 우수하였다. 이후에 다른 초본이 나와 널리 영향을 미치고 해외에 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만문 《大藏經》은 건륭37년에서 59년(1772-1794)에 걸쳐 번역되었는데, 한문, 티벳문, 몽골문, 범문 대장경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국어대장경》이라고도 불렸다. 모두 108개의 합에 불교경전 699종 2,466권이 담겨졌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북경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것은 76개 합 605종(33,750쪽),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것은 32개 합 800여 권에 불과하다. 그 목록과 제본형식 및 판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모두가 淸 內府 ‘淸字經館’의 原刻朱色初印本이다.

이밖에 《三國演義》 《西廂記》 《金瓶梅》 《聊齋志異》 등과 같은 한문 문학명저도 모두 여러 종의 만문 번역본이 있다. 이 가운데는 우수한 작품도 적지 않은데, 가령 扎克丹이 번역한 《聊齋志異》가 그것이다.

청대의 언어환경은 《御制淸文鑒》 《大清全書》 《無圈點字書》 《淸文典要》 《同文廣滙全書》 《淸漢文海》 《西域同文志》 《淸文總匯》 《六部成語》 《淸語摘抄》 등의 사서와 《淸文啓蒙》 《淸文虛字指南編》 《十二字頭》 《淸文接字》 《淸語易言》 《淸文指要》 등의 교과서와 같은 풍부한 언어류 문헌을 출현하게 하였다.

《어제청문감》은 강희47년(1708)에 만들어졌으며, 모두 4개의 함으로 구성되었다. 앞 3개의 함에는 序, 部類, 正文, 跋 및 편찬관원의 명단을 포함한 총 22책이 들어있고, 네 번째 함은 總綱이다. 正文의 분류배열은 36部로 나누고 부 아래에 다시 총 280類로 나누었다. 수록된 詞條는 單詞와 詞

組를 포함하여 12,000여 개이다. 책머리에는 강희(淸聖祖 玄燁)가 편찬된 해에 쓴 서문이 있고, 책 끝에는 편자가 쓴 2편의 발문과 2개 조로 구성된 편찬관원의 명단이 붙어있다. 제1조는 모두 12명으로, 武英殿大學士 馬齊를 비롯한 6명의 殿閣大學士와 6명의 內閣學士가 포함되었고, 제2조에는 중앙 각 部, 院, 司, 寺의 주요 관원 56명이 포함되었다. 4책으로 이루어진 總綱은 수록된 모든 어휘들을 만문의 12字頭 순서에 따라 배열한 색인이다. 《어제청문감》은 체제가 정교하고 합리성을 갖추어, 설사 현대 사전학의 잣대로 살펴보다도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大清全書》는 만한사전으로, 청인 沈啓亮이 편찬하였고 강희22년(1683) 京都宛羽齋에서 출간하였다. 총 14권이며, 12자두에 따라 배열하였고 수록된 사조는 10,000여 개이다. 책머리에는 작자의 한문서언과 범례 및 총목록이 있다. 본문 가운데 만문 부분은 고유명사, 합성어 및 동사의 형태 변화 등을 포함하였다. 어떤 사조의 뒤에는 예문을 붙이기도 하였는데, 대다수가 만주어 번역본 《사서》 《오경》이나 六部則例에서 나온 것이다. 한문 부분은 대부분 대역이나 대역으로 해설을 돕는 방법을 취하였고, 소수의 한어 가운데 대응할 어휘가 없는 경우에는 음역 또는 해설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책은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최초의 일정한 규모를 갖춘 만한사전이지만, 개인이 편찬한 관계로 수록 어휘와 의미 해석에 있어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

《無圈點字書》는 老滿文 연구에 필요한 도구서로, 건륭6년(1741) 鄂爾泰, 徐元夢이 편찬하였다. 노만문이 明 만력27년(1599)에 창제되었고 신만문이 등장한 것은 천총6년(1632)이니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은 30여 년이다. 노만문은 비록 응용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滿文老檔》이란 중요한 저작을 남겼다. 《만문로당》은 기본적으로 노만문을 썼기 때문에 건륭 초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100여 년의 거리가 생겨 노만문을 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륭황제는 “무권점자는 만문의 바탕이다. 지금 만약 책으로 편찬하여 수록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근거할 곳을 잃어 사람들은 만문이 무권점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게 될까 걱정스럽다.”라고 여기고, 건륭6년에 교지를 내려 내각대학사 악이태와 상서 서원몽 등에게 《만문로당》을 읽고 분별하기 어려운 노만문자를 조사해서 책으로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악이태 등은 황명을 받들어 《만문로당》 가운데 노만문자를 12자두로 배열하고, 밑에 신만문으로 주석을 달아 4책으로 나눠 엮어냈다. 《무권점자서》는 오늘날 우리가 노만문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淸文總匯》는 만주어를 배우고 연구하는 데 가장 많이 쓰는 도구서이다. 광서23년(1897) 京都宛羽齋에서 간행하였으며, 志寬과 培寬이 주편하였다. 모두 12책 12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록된 단어는 20,000여 조이다. 책머리에는 宗室 祥亨의 서문이, 뒤에는 작자의 발문이 붙어있다. 이 책은 《淸文匯書》와 《淸文補匯》를 합쳐서 만든 것이다. 《淸文匯書》는 雍正2년(1724)에 처음 출판되었고, 작자는 李延基다. 모두 12책 12권으로 구성되고 책머리에 작자의 서문이 붙어있다. 《淸文보회》는 건륭51년(1786)에 간행되었고 작자는 宗室 宜興이다. 《淸文匯書》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총 7,990여 개의 말을 모아 8책 8권으로 이루어졌고 책머리에 작자의 서문, 말미에 그의 사위가 쓴 발문이 있다.

《淸語摘抄》는 독특한 성격을 띤 만한대조 전용사서다. 만문문서를 읽을 때 문서의 전문용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광서5년(1889) 京都聚珍堂에서 간행한 판본이 남아 있는데, 모두 4책이며, 《衙署名目》 《官銜名目》 《公文成語》 《折奏成語》로 구분된다.

《西域同文志》는 만주어, 한어, 몽골어, 티벳어, 위구르어 등 여러 문자로 된 인명이나 지명을 대조하고 해설한 사전이다. 청 大學士 傅恒 등이 황명을 받아 편찬하였고, 총 24권으로 건륭28년(1763) 武英殿에서 출간하였다. 이 책은 지역에 따라 배열하고 또 지명, 산명, 수명, 인명으로 나누었다. 주로 지금의 신강, 티벳, 칭하이와 이들과 인접한 일부 국경 밖의 지역을 다루고 있다. 하나의 사조마다 6가지 문자로 대조하는데, 맨 처음에 만문, 그 다음에 한문과 상세한 주석, 그 다음에 한문의 삼합절음으로 만문음을 달고, 그 뒤로는 차례대로 몽골문, 티벳문, 托忒몽골문(托忒), 위구르문의 표기를 나열하였다. 이 책은 서북의 민족, 역사, 지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도구서이다.

《清文虛字指南編》은 작자가 萬福이며, 광서11년(1885)에 출간되었고 광서20년(1894) 鳳山이 수정하여 《重刻清文虛字指南編》이라 하였다. 모두 2책으로, 과거 만문 문법을 학습하는 데 있어 매우 훌륭한 교재였다. 이른바 ‘허자’는 조사, 후치사, 연사, 어기사, 동사의 어미변화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러한 원소들은 문구에 담긴 뜻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예문으로 제시하면 이해하고 기억하기에 아주 편리하였다.

《清文啓蒙》은 만주어 교재로, 청인 舞格이 편찬하고 옹정8년(1730) 三槐堂에서 출간되었다. 같은 해에 여러 종류의 판본이 간행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 가운데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널리 유행했던 한어로 만주어를 학습하는 교재이다. 모두 4권으로 구성되었는데, 1권은 語音으로, 12자두 1,280자를 한자로 표주하고 切韻 195개로 음을 표시했다. 2권은 회화이며, 42개 단락의 대화를 실었다. 3권은 허사 용법으로, 200여 개의 허사를 수록하고 한어 해설과 만주어, 한어 예문을 붙였다. 4권은 유사단어 판별로, 만한 대조 어휘 1,573개를 수록하였다.

청대 碑刻의 가치는 청대에 碑學이 흥성 발달해서 뿐만 아니라 특히 종류가 다양하여 학술적 내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산된 시기를 보면 위로는 後金 天命으로부터 아래로는 청 말 宣統까지이며, 종류를 보면 墓碑, 墓志, 墓碣, 誥封碑, 題名碑, 旌表碑, 烈節碑, 墓表, 諭旨碑, 埜地碑에서 門扁, 塔碑, 神道碑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만문 조기의 작품은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문헌이 드물었기 때문에 더욱 희소 가치가 높다. 이미 발견된 초기 만문 비각에는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문체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소량의 만문체를 제외하면 만한합벽본이 다수를 차지하고, 간간이 滿蒙漢3체합벽본, 滿蒙漢藏4체합벽본, 滿-라틴(Latin)합벽본도 보인다. 또 하나는 종류가 많다는 것인데, 墓碑, 誥封碑, 諭祭碑, 題名碑, 諭旨碑, 告示碑에서 塔碑, 寺碑, 陵碑, 堂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는 곧 만족사회가 출범할 당시의 다양한 문화배경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다체합벽본이다. 각 문체 사이에는 내용과 기술 방식에서 모두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으며, 또 반대로 각 문자체의 상호 대조를 통해 같은 점과 다른 점 사이에서 실마리를 얻어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찾을 수도 있다. 현존하는 만문비각의 탁본이 가장 많은 곳은 북경국가도서관과 북경대학도서관 및 大連도서관 등이다. 《全國滿文圖書館資料聯合目錄》에는 이들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實勝寺碑: 이 비는 심양의 實勝寺에 있다. 실승사는 盛京의 서쪽(지금의 沈陽市 和平區 黃寺路)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이 입관하기 전 성경에서 가장 큰 라마사원이었다. 현지 사람들은 皇寺 혹은 黃寺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皇太極이 察哈爾蒙古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 건조한 것이라고 한다. 崇德元年(1636) 7월에 칙령을 내려 건조하기 시작해서 崇德3년(1638) 7월에 완공하였으며, 완전한 명칭

은 ‘蓮花淨土寶勝寺’지만 후세 사람들이 보통 寶勝寺, 皇寺, 黃寺로 불렀다. 이 사찰은 蒙古大汗 忽必烈의 摩訶迦羅金像을 모셨기 때문에 청조에는 당시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불교사원이 되었다. 사원 내정 좌우에 남쪽을 향해서 대칭으로 비가 하나씩 섰는데, 앞뒤 양면에 비문이 있다. 동쪽에 있는 비는 정면이 만문, 뒷면이 한문이고, 서쪽에 있는 비는 정면이 몽고문, 뒷면이 티벳문(서역문)이다. 만문 비문은 內國史院大學士 剛林이 썼고, 나머지 3개 문자로 번역한 사람은 비문의 끝에 이름이 보인다. 비문은 《청태종실록》에 실려 있다. 그 만문탁본 필름은 높이 240밀리, 너비 95밀리로, 현재 북경대학도서관과 대련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다.

盛京四寺碑: 즉 護國永光寺, 廣慈寺, 延壽寺, 法輪寺비를 말하며, 順治2년(1645) 5월에 새겨서 요녕성 심양시 동서남북에 각각 세웠다. 각 비마다 4면이 있으며, 탁본 필름은 높이는 235밀리지만, 너비는 20에서 30밀리로 같지 않다. 한문, 만주문, 몽고문, 티벳문으로 나누어 새겼는데, 내국사원 대학사 강림이 만문을 쓰고, 나머지 3가지는 學士인 黑德, 厄者庫石岱, 東木藏古翳이 각각 한문, 몽골문, 티벳문(서역문)으로 번역하였다. 이 4가지의 비문은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각자 언어별로 독특한 풍격을 드러낸다.

국문 요약

16세기 말에 만들어진 만주문자는 문자사에서 특수한 의의를 지닌다. 언어를 기록하는 수단으로서 만주문자는 만주족 및 만주-통구스어족 가운데 자체 문자가 없는 일부 민족들에게 글쓰기 도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들의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아울러 청이 통치한 약 300년 동안 ‘국어’로서 국정과 대외문화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존하는 만주어문헌은 그 수량이 방대하고, 문서, 도서, 금석비각 등 형식 또한 다양하다. 단지 북경 중국제1역사당안관에 소장된 청대 만주어문헌만 하더라도 그 수가 100만을 넘는다. 중국의 여러 성에 있는 당안관(주로 東3省 및 그 관할 시, 내몽고, 티벳, 신강 등)과 도서관, 박물관에 모두 소장품이 있으며, 대만의 고궁과 중앙연구원에도 대륙에서 가져온 대량의 만주어문헌이 보존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17, 18세기 및 그 이후의 대외문화교류와 정치마찰 속에서 대량의 만주어문헌이 세계 여러 나라로 전해져, 러시아, 한반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바티칸 등지에 진귀한 소장품이 있고, 심지어 당시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만주어문헌이 만들어져서 세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만주문자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주로 청대 중앙기관에서 나온 문서와 중요한 서적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